

스포츠패스 요금 25% 인상한 쿠팡플레이

“해외축구 보려면 더 내라”

개인정보 유출 파문 가라앉기 전에... 스포츠 패스 최대 25% 인상
EPL 등 51개 중계권료 부담 한계... 결국 이용자가 짊어지나 비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비수기에 역대 처음 월간활성이용자수(MAU) 900만명을 넘긴 쿠팡플레이가 '스포츠 패스' 구독료 인상에 나선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플레이는 스포츠 전용 부가 서비스인 '스포츠 패스' 구독료를 최대 25% 올린다. 와우회원의 경우 스포츠 패스를 이용하면 추가로 월 9900원을 내야 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1만2400원, 일반회원은 1만6600원에서 1만9300원으로 올리기 위해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실한 대저로 못매를 맞았다. 신뢰 회복이 시급한 시점에 자회사인 쿠팡플레이가 가격 인상을 들고 나왔다. 쿠팡플레이도 이를 의식한 듯 스포츠 패스를 이미 이용 중인 기존 가입자는 인상 전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달래기에 나섰다. 인상분 반영은 다음달 1일 신규 스포츠 패스 가입자부터다.

#스포츠 팬은 가격 인상해도 안 떠난다?... 쿠팡플레이, 월 이용자 900만 돌파
그동안 쿠팡플레이는 '쿠팡 회원이면 무료'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몸집을 키웠다. 소형 고객을 OTT에 묶

어두는 이른바 락인(Lock-in) 전략이다. 덕분에 넷플릭스에 이어 국내 OTT 2위 자리를 굳혔고, 지난달에 이용자 900만명을 돌파했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플레이는 한 번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 나가지 못하는 스포츠 팬들의 '팬심'을 이용해 요금을 올리는 '배짱 영업'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포츠 패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부 스포츠 콘텐츠는 시청할 수 있지만 쿠팡플레이 독점 중계나 프리미엄 스포츠 콘텐츠는 스포츠 패스 가입이 필요하다.

답은 쿠팡플레이의 가장 큰 숙제다. 쿠팡플레이가 현재 중계하는 리그와 대회는 무려 51개다. 경쟁사인 티빙(18개)이나 스포티비(31개)를 압도한다. 와우 멤버십과 기존 스포츠 패스 구독료 수익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독점 중계권료만 해도 연간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포츠 팬들의 경우 해비 유저로 여겨지고 흔히 말하는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 창출이 되는 콘텐츠라며 "국내에서 쿠팡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와우 멤버십 전체 가격을 건드리기보다는 쿠팡플레이가 운영하는 별도의 프리미엄 상품인 스포츠 패스를 인상하는 게 관측은 선택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최근 열린 런던 마라톤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워 우승을 차지한 사웨.

‘2시간 벽’ 갠 사웨, 또다시 기록 단축 도전

9월 베를린 마라톤 출전

인류 역사상 최초로 2시간 이내에 마라톤을 완주한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가 베를린 마라톤에 출전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13일(현지 시간) "사웨가 9월 27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베를린 마라톤에 출전해 또 다시 세계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열린 2026 런던 마라톤 남자부 경기에서 42.195km 풀코스를 1시간59분30초에 완주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023년 켈빈 키프탑(케냐)이 세운 종전 기록 2시간10분35초보다 1분 이상 빠른 기록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서브 2시간 이내에 마라톤 풀코스 완주에 성공한 바 있다. 베를린 마라톤은 코스가 평탄하고 코너가 적어 세계기록이 자주 나오는 대회다. 지난해 열린 대회에선 무더위와 높은 습도 때문에 좋은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사웨는 당시 2시간26분16초를 기록하며 우승을 거뒀다.

사웨는 "이번 대회 목표를 공금해할 것이다. 난 런던 마라톤에서 2시간 기록을 갠 후에도 열심히 준비했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최대한 빨리 달리겠다"며 또 한 번의 기록 경신을 예고했다.

사웨는 지난달 28일 영국 런던에서

/뉴시스

전국대회서 메달 행진... 익산시청 육상팀 '상승세'

전국육상경기선수권 동2, 중별선수권 금1·은2·동1

익산시청 육상팀이 전국 규모 육상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청 육상팀은 '제80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제55회 전국중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이달 11일부터 강원 정선군에서 열린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익산시청 육상팀 소속이자 여자 해머던지기 국가대표 김태희 선수는 안정적 경기 운영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김민지 선수도 여자 창던지기에서 우수한 기량을 바탕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며 팀 상승세에 힘을 보탤

앞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에서 열린 '전국중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익산시청 선수들은 고른 활약을 펼쳤다. 김태희 선수는 여자 해머던지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 김민지 선수는 여자 창던지기 은메달, 장영민 선수는 남자 해머던지기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오혜원 선수는 여자 1,500m 경기에서 뛰어난 레이스 운영을 펼치며 은메달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선수들이 꾸준한 훈련과 자기 관리로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부상 없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청 육상팀 김태희(왼쪽)와 김민지.



(사진=익산시청 제공)

질병관리청, 월드컵 대비 감염병 대책반 운영

북중미 현지 흥역 유행... 뎅기열·A형간염 풍토병 예방접종 권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은 14일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대회 종료시까지 감염병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월드컵은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 16개 도시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는 개최국 멕시코를 포함해 체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과 함께 A조에 포함돼 예선전을 멕시코 과 달라하타, 몬테레이 지역에서 치른다. 질병청에서 감염병 위험 상황 분석을 한 결과 북중미 지역에서 흥역이 유행 중이다. 일반 국민 위험은 낮지만 예방접종력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위험군에서는 중증의 가능성이 있다. 또 멕시코는 뎅기열 풍토병 국가이며 치쿰구아얄 감염병도 남부 2개 주에서 신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서도 전 지역에서 캄보박터, 살모넬라 등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 보고되고 있으며 A형간염 역시 풍토병이다. 장티푸스는 멕시코 남부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질병청은 선수단을 포함해 월드컵 기간 북중미 지역 방문자에게 흥역과 A형간염, 장티푸스 백신 접종 완료를 권고했다. 현지 체류 중에는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익힌 음식 섭취, 모기 기피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 귀국 후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하여 최근 여행한 지역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했다. 임성관 질병청장은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고 야외 응원이 동반되는 월드컵 특성을 고려할 때 감염병뿐 아니라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하다"며 "선수단과 우리 국민들에게는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낮시간에는 수분섭취와 휴식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BTS, '2026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 헤드라이너

너로 방탄소년단, 마돈나, 사키라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월드컵 결승전의 보컬 크리시 마틴이 아티스트 큐레이션을 맡았다. 자신 단체 글로벌 시티즌(Global Citizen)이 제작을 담당한다. 앞서 FIFA와 글로벌 시티즌은 지난

해 여름 클럽 월드컵 결승 당시 도자켓 등을 내세워 시험 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16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이번 월드컵은 중계 시청자 외에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강화했다.

사키라는 아프리카의 스타 버나 보이와 함께한 공식 주제가 '다미 다(Da Dami)'를 발표하며 열기를 더하고 있다. 오는 6월 12일 로스앤젤레스 스포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미국 개막전 앞선 공연에는 블랙핑크 리사를 비롯해 케이티 페리, 퓨처, 아티타 등 글로벌 팝스타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이다. /뉴시스

